

52 학년을 마치며



이제 얼마 후면 정들었던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의 생활을 되돌아 봅니다. 처음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참 많았어요. 기도를 잘하고 말씀도 날마다 읽고, 무엇보다 꼭 한 명이라도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도 즐겁게 교제할 수 있었어요.

성경 암송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이번 주만 지나면 1년 동안 같이 교제해 온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 반 친구들과 장난도 많이 치고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배웠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했던 여름성경학교의 추억,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놀았던 기억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제가 올바르게 살도록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혼낼 때도 많았지만, 아마 저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래요.

1년 동안 저를 지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되돌아 보아요



1년 동안의 교회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적어 보세요.



우리반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이나 때문에 걱정했던 일이나 좋아했던 일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1년 동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학년 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고 써 보세요.



좋아진 것




고치지 못한 것



후회되는 일



 우리 반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써 주세요.





이것만은 기억해요!

40 사사삼손

삼손은 잠깐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41 룻의 믿음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42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43 사울의 불순종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44 골리앗을 죽인 다윗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45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46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사울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47 왕이 된 다윗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48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요나단의 아들인 절뚝발이 므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49 지혜를 구한 솔로몬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50 성전을 지은 솔로몬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51 나누어진 나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철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야!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선생님: 철수는 크리스마스가 즐거운가 보구나!

철수: 그럼요, 선생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또 선물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요.

선생님: 그래, 하지만 철수야.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란다.

철수: 정말요? 그럼,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말하나요?

선생님: 본래 로마에서는 하루 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보고 이 날 농업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단다. 후에 사람들은 이 날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정하고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란다.

철수: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신 건가요?

선생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말씀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구절로 보아서, 12월의 추운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구나. 철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지?

철수: 그럼요.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선생님: 맞아.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물론 어느 날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단다.

10월

주암송



10/5 40과 사사 삼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10/12 41과 룯의 믿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룯기 1:16)

10/19 42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10)

10/26 43과 사울의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22)

11월

11/2 44과 골리앗을 죽인 다윗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8)

11/9 45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사무엘상 18:3)

11/16 46과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17)

11/23 47과 왕이 된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22)

11/30 48과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1)

12월

12/7 49과 지혜를 구한 솔로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12/14 50과 성전을 지은 솔로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12/21 51과 나누어진 나라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열왕기상 12:7)

12/28 52과 학년을 마치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10월

10/5

40과 사사 삼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10/12

41과 룯의 믿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룯기 1:16)

10/19

42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10)

10/26

43과 사울의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22)

11월

11/2

44과 골리앗을 죽인 다윗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8)

11/9

45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사무엘상 18:3)

11/16

46과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17)

11/23

47과 왕이 된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22)

11/30

48과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3:1)

12월

12/7

49과 지혜를 구한 솔로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12/14

50과 성전을 지은 솔로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12/21

51과 나누어진 나라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열왕기상 12:7)

12/28

52과 학년을 마치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절취선을 뜯어
잘보이는 곳에 붙이세요
외운 암송을 색칠해보세요.



10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11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45, 47)

12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6~8)